

과수 응애류 생태와 방제

농업기술연구소 곤충과
유재기

응애(葉蟬)류가 농작물의 중요한 해충으로 군림하게 된 것은 최근의 일이다. 특히 우리나라에서는 세계 2차대전 이후에 DDT, BHC, 파라치온을 비롯한 유기합성농약의 도입으로 그 사용이 급증하게 되었다.

이 농약들은 강력한 살충력을 가졌거나 긴 잔효력을 나타냄으로서 해충의 방제효과는 좋았으나 응애류에 기생하거나 포식하여 발생을 억제해오던 각종 천적에 타격을 주었을 뿐 아니라 자연 생물상(生物相)의 균형을 파괴하게 되었다. 이러한 결과로 해충의 이상번식(異常繁殖) 현상을 가져와 응애류와 같은 잠재적인 해충이 주요 해충으로 등장하게 되었으며 그 피해도 날로 증가하게 되었다.

또한 응애류는 그 종류에 따라 살

비제(殺蟬劑)에 의한 방제효과도 다르게 나타나며 연간 방제 횟수도 다른 해충에 비하여 많은 편이다. 그러므로 동일 약종의 계속적인 연용으로 인하여 그 약제에 대한 저항성 응애가 나타나게 되어 약제방제가 어렵게 될뿐아니라 경우에 따라서는 급속한 밀도회복으로 생각지도 않던 피해를 입게되어 그해 농사의 성패를 좌우하게 된다.

우리나라에 분포하는 식물기생성 응애는 모두 5과(科) 19종(種)이 보고 되어 있으나 그중 과수에 큰 피해를 주는 주요 응애로는 사파응애, 절박이응애, 벚나무응애, 꿀응애, 크로바응애 등이 있다.

이들 응애중 첫 번째로 사파응애의 생태와 방제법에 관하여 기술하고자 한다.

1. 사과옹애 (*Panonychus ulmi KOCH*)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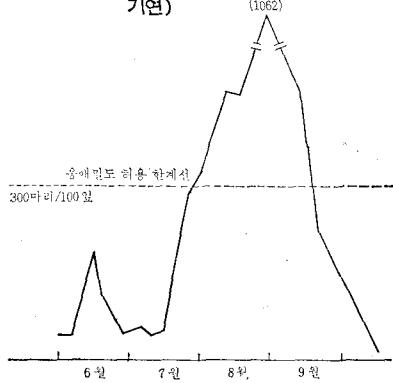
사과옹애(赤蟬: 일본명은 링고이나 많은 농민들은 아까)는 성충의 크기가 0.4mm 내외의 아주작은 거미모양의 해충으로 적갈색 혹은 선홍색이며 과수뿐 아니라 여러 작물과 90종 이상의 식물에 기생하는 대해충이며 전국의 과수지대(특히 사과)에 가장 많이 분포되어 있고 피해가 제일 심하게 나타나고 있다.

가. 발생 및 피해

○ 발생

이옹애는 3년생~1년생 가지의 눈이나 접지부 끊눈 근처에서 알로 월동하며 4월 하순부터 5월 상순에 부화하여 10월까지 계속 발생하여 년 7~8회 발생하나 여름철인 7~8월에 밀도가 가장 높다.

<그림 1> 사과옹애 발생소장(1978, 농기연)



이해충의 발생시기 및 발생량은 기후 및 환경 조건에 따라 다르며 일반적으로

① 겨울과 초봄의 기온이 높아 월동난의 부화율이 높거나

② 여름철에 기온이 높고 비가 적어 가을철 옹애밀도가 높아 월동난이 많은 다음해에 대발생하며 비료의 증시도 옹애밀도를 증가시킨다는 보고가 있다.

부화 최적 온도는 22~23°C이며 습도는 80~90%로 월동난이 99%까지 부화하는데 약 10일이 걸린다고 한다. 이밖에도 햇빛, 바람, 강수량 등 모든 요인이 옹애의 발생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 피해

이 해충은 잎으로부터 다량의 즙액을 섭취하여 영양원으로 하여 잎의 표면이나 뒷면에 기생하여 바늘과 같은 침으로 즙액을 빨아 먹는다. 즙액과 함께 엽록소도 흡수되므로 표면에 흰 반점이 생기며 심하면 비료가 적은 것처럼 누렇게 변색되고 잎이 말라서 일찍 떨어진다. 그 결과 잎의 동화작용이 저해되어 과실이 작아지고 당도(糖度)가 낮아지는 등 과실의 상품 가치가 저하될뿐 아니라 나무의 세력을 약화시켜 화아형성에도 영향을 주어서 다음해 과실 수확량까지도 줄어 들게 되는 등 피해가 가장 큰 해충이다.

이 옹애의 가해습성은 노엽(老葉)

보다 신엽에 피해가 크며 품종 별로는 잎이 얇은 품종 일수록 피해가 크다. 이는 잎의 큐티를 두께와 관계가 있으며 데리샤쓰, 축, 흥옥, 국팡, 인도, 육 순으로 피해가 심하다는 보고가 있다. 월동난에서 부화한 사과옹에 약충은 나무가지의 위로 이동하는 습성이 있으며 이는 미성식 유충(未攝食幼虫)의 강한 주파성 때문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한편 성충은 잎 표면보다 요철(凸凹)이 다소 있는 잎뒷면에 주로 모여서 생활한다. 응애는 잎으로부터 1시간당 체중의 20~25%에 해당하는 즐액을 잎에서 흡啜하는 무서운 해충이다.

더우기 이 해충은 매우 작아 발견하기가 어렵고 발생횟수가 밀도증가 속도가 대단히 빠르기 때문에 방제 시기를 놓치기 쉽다.

나. 방제대책

응애류의 효과적인 방제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다고 하겠다. 아주작은 해충이지만 년 발생세대수가 많고 번식율이 높기 때문에 순식간에 밀도가 증가되고 피해를 주는데 발견하기 어려운 미소한 해충인데다가 피해 양상마저 일부 반해충과는 달리 서서히 나타나게 되므로 방제의 실기를 하는 수가 많다. 반면에 일부 과수재배 농가에서는 응애의 발생 밀도와는 상관없이 시기에 맞추어

정기적으로 약제를 살포하고 있어 방제비 증가는 물론 약제 저항성의 유발과 급속한 밀도회복, 유용천적의 살해 등 악순환이 되풀이 되고 있는 실정에 있다.

※ 사과옹애의 약제저항성 유발과 현황

약제의 저항성이란 해충을 방제하기 위하여 약제를 계속 사용할 때 처음에는 효과적인 약제가 그 효력이 갈수록 떨어지는 현상을 말한다.

이러한 원인으로는 첫째, 약제 살포가 거듭됨에 따라 약한 계통의 해충은 줄어 들고 강한 계통이 남아 번식하게 되는 도태(淘汰) 작용, 둘째 해충 체내에서 약제를 분해하거나 작용점으로의 이동을 느리게 또는 못하게 하거나 층체의 표피가 두꺼워져 약제의 침투를 저해 하는 등 해충의 돌연변이를 일으켜 방제효과를 저하시키게 된다.

특히 사과옹애는 그 밀도가 높고 년중 발생횟수가 많아 어느 해충보다도 많은 농약을 살포하여 왔기 때문에 약제에 대한 저항성이 많이 생겼다.

사과옹애는 1960년대에 많이 사용한 파라치온등 유기인제에 대해 대구 계통이 233배 광주계통이 47배 등 높은 저항성을 나타냈으나 많이 사용하지 않은 유기염소제 약제에는 예산, 수원계통 등이 낮게 나타났었다. 그러나 약 10년 후인 1979년 조

사에서는 유기염소제에 대해 수원이 363배, 예산이 170배 등으로 전국 과수지대에서 높은 저항성 정도를 나타냈으며 특히 363배의 저항성이 생긴 수원계통은 한약제만을 15년간 연용해온 농가인데 한약제의 계속 사용은 저항성이 빨리 유발된다는 대표적인 예라하겠다.

그리고 다른 살비제도 지역과 파원에 따라 각기의 약제에 대해 감수성 정도를 달리하고 있으며 앞으로 약종 선택과 교호 살포등 약제방제를 신중히 하여야 할 것이다.

※ 월동란의 방제

사과옹애의 월동란 방제는 초기의 밀도를 억제 하는데 대단히 중요하며 8월 하순부터 산란된 월동난은 그 이듬해 4월 하순부터 부화를 시작하여 5월 상순까지 전체 월동난의 90%이상이 부화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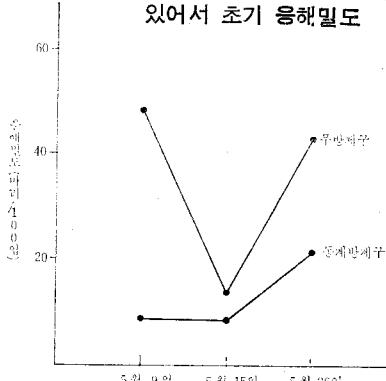
표 1. 사과옹애월동란의 동계 방제 (기계유유제) 효과 ('78. 농기연)

처 리	처 리 전 총 환수	5월 상순까지 부화된 난수	부화율 (%)
동 계 방 제 구	209	40	19.1%
무 방 제 구	1,603	1,423	88.8%

한 예로 필자는 금년봄 월동란이 많은 사과나무에 약제살포를 하지 않고 관찰한바 낙화기때 이미 잎이 누렇게 변색되었으며 엽당 밀도는 수백 마리에 이르렀다.

한편 1978년도에 기계유유제로 동

<그림 2> 동계방제구와 무방제구에 있어서 초기 응해밀도



계 방제를 실시한 구와 하지 않은 구의 초기응애밀도를 조사해본 결과 <그림 2>에서 보는 바와같이 동계 방제구에서는 응애의 밀도가 낮게 지속 되었다.

월동란의 방제로는

(1) 기계유유제 95%를 15~20배로 희석하여 2월 하순부터 3월 하순까지(눈이 트기전까지면됨) 살포하는데 나무 전체에 고루 뿌려 지도록 살포함이 중요하다.

(2) 최근 살란(殺卯) 효과가 좋은 약제가 많이 있어 알을 잘 죽이나 휴면중인 알에는 효과가 많이 떨어지거나 전연 효과가 없는 약제가 많다.

※ 부화이후의 방제

월동란이 부화되고 잎이 개엽하고 난 후부터 응애밀도를 세심히 관찰하여야 하는데 잎면적 1cm²에 1마리 정도의 기생은 피해가 문제 되지 않는다는 보고가 있으며 일반적으로

로 한일당 3마리 정도 일때가 방제 밀도로 알려지고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농가에서는 주기 적으로 약제를 살포하고 있으며 약종 선택에서도 효과가 좋다는 약제를 택하여 계속 연용하고 있는 실정에 있다. 과수옹애방제의 바람직한 살비제 살포는 응애의 발생밀도를 잘 관찰하여 적기 살포토록 하고 한 약종으로 년 1회 이상 사용치 않을 것이며 약제

를 잘 선별하여 교호살포를 실시하는 것이 좋다. 혹자는 교호살포를 실시한다고 약종이름만 다를뿐 같은 계통의 약제를 계속 살포함으로서 약제 저항성 유발에 대한 예방책이 전혀 되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

또한 일반 농가에서는 년 6~10회의 살비제를 살포하고 있으나 동계방제를 철저히 하고 응애밀도를 잘 관찰하여 뿌리면 년 2~3회의 살비제

표 2. 화학적 구성별로본 살비제의 종류

화학적(주성분)분류	살비제의상품명	사용배수
유기인체계	트리치온 수화제·유제	500배
	에치온유제	1,000배
	가루이크론유제	1,000배
유기염소제계	웰센(겔타인, 미티칸, 퀼마이트)유제	1,000배
	·수화제·디코풀수화제	1,000배
	살비란(살비란)수화제	1,500배
유기유황계	테디온(킬란, 테디란)유제	800배
	오마이트(뉴마이트)수화제	500배
불소제계	닛솔유제	1,000배
주석제계	프릭트란수화제	600~1,000배
브롬제	에이카롤유제	1,000배
오일제	기제유유제	15~25배
기타 합성유기제제	씨트라존유제	1,000배
	씨다이트유제	1,000배
	マイ킷트유제	1,000배
	토-큐수화제	1,000배
	아카루(엔지란)유제	1,000배

살포로 방제한계밀도(엽당 3마리 정도) 이하로 계속 유지 시킬 수 있다고 본다. 특히 약제 방제에 한가지 유의 할것은 일부 약제는 약효발현이 늦

어 살포후 상당한 시간경과를 요하는 데 성급하게 다른 약제를 다시 뿌리거나 고농도로 회석 살포하여 약해나 경비를 낭비하는 일이 없어야겠다.